

부활하라 최 동 열사여!

자주, 민주, 통일의 세계상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잃었습니다. 척박한 땅 반도의 남단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세계상을 예타게 갈망하면서 분연히 투쟁의 대열에 떨쳐 일어섰던 우리의 동지를 '독재정권 유지 기관인 치안본부의 고문수사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이에 우리는 박종철을 고문살해한 5공화국에서만이 아니라 6공화국에 들어서도 고도로 지능적인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한 인간을 파괴하는 밀실 고문과 교도소에서의 비윤리적 처사 등에 분노를 금치못하며 이땅에서 젊은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최 동 열사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시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학생운동에 앞장섰으며 1983년 광주 민중항쟁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학내 시위를 주도하여 10개월간의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이후 열사는 가장 억압받는 민중, 노동자의 해방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부천시의 노동현장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탄압에 열을 올리던 현정권은 최열사와 함께하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하여 89년 4월 28일 홍제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3부로 최열사를 연행하였습니다.

최열사는 20여일간 외부와 격리된채 밀실에서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이러한 위협적 상황에 맞서 2차례에 걸쳐 자해를 하였습니다. 파업현장에서 가두에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던 건강한 한 젊은이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시킨 현 노태우정권의 하수인 치안본부의 가혹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자해의 상처를 치료하지도 못한채 구치소에 이송된 열사는 적절한 치료나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기껏해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투여받으며 불면과 소음 및 가스 두이에 대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고 마침내는 정신분열 증세와 실어증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료도 제대로 하지않아 건강 상해를 더욱 악화시킨 구치소의 비인간적 처사를 규탄합니다.

최열사는 출소후에도 계속 같은 증세로 시달려왔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현정권의 잔악한 인간 파괴행위에 대하여 폭로하였습니다.

최열사의 분신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대공분실에서 당한 가혹 수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하는 몸부림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최열사를 죽음에 이르게한 불법 연행의 근거는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끊임 없이 휘두르고 있는 노태우정권! 그들의 탄압도구인 국가보안법!

오늘도 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불법 연행되어 밀실 수사를 당하고 투옥되어 차가운 감방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의 탄압도구, 독재권력 유지수단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구속 수배중인 모든 노동형제와 애국 청년학생, 민주인사들은 즉각 석방 수배해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 동 열사의 죽음을 추도하며 최열사가 온 몸으로 폭로했던 고문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고 최동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고문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공안당국의 강제연행 불법수사를 즉각 중지하라!

—밀실수사, 고문살인 치안본부 대공분실 해체하라!

—인노회 회장 사무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민중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990년 8월1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인천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국민연합 인천본부

민중당

부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성균관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인노회, 사건 석방자 일동

성대 민주동문회

애국열사 고 최동 노동자장 장래위원회

'고문후유증' 최동씨 죽음이 남전 것

"저들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개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7일 헌양대에서 분설자살한 최동(30)씨가 남전 메모의 한 구절은, 그가 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울 수 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씨는 80년 삼군관내 국문과에 입헌한 후 10여년간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반독재투쟁과 노동해방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나 부친에서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최씨는 대단히 원칙적이며 자신에 대해 철

고 있었다. 이 단체는 80년 1월부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화원동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씨는 이의 권린 행한 것이다.

조사를 받는 동안 최씨는 수사관들이 내민, 연행될 때까지 한달 보름이 동안의 자신의 행적을 적은 시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그 시진들 중에는 친구의 결혼식 사진, 신매의 이시집을 옮기주는 사진 등 시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들도 있었다며, 같은 시진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최씨의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신정길(33)씨는, "자신의



가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가 때문에 지체했다고 최씨가 말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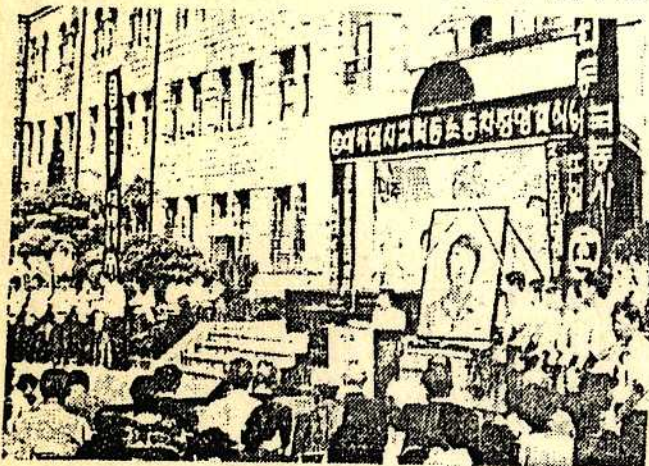
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컷숄대를 날카롭게 갈아 목을 찢리 기도가 1cm가량 찢어진 2번째의 자해는, 미리의 상처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은채 계속된 강압적 조사 때문이었을 것으로, 최씨 분신 5일전에 그를 만났다는 학교후배 박경호(28)씨는 추측한다. 최씨는 "저는 사해의 불종 그리고 학비-공갈과 시진들 들어맞지 강요하는 자백요구, 주로 밤에 조사를 하는 등으로 20여일간 거의 잠을 못자, 이 때 이미 수면기능이 파괴되고 우울증과 피해망상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나 구치소에 넘어간 후에도 최씨에 대한 치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한다.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외상치료도 기껏, 소독과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우울증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이 그를 자살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가해진 국가기관에 의한 유형·무형의 폭력을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죽음을 택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과 동료들은 그의 최후의 상태는 극히 정상이었으며, 설령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수사과정의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진 최동씨에 대한 고문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최씨와 그를 조사한 수사관밖에 알 수 없다. 치안본부에서는 최씨에 대한 고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은 최씨의 동료들도 직접적인 신체적 고문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사과정에 참을 거의 재우지 않았다는 사실과 강압적 분위기, 그리고 특히 헌당모임이었던 시생활을 침해하며 최씨를 감시해 왔다는 사실 등은 불공평이건 기고문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고문 못지않은 정신적·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었다는 게 동료들의 주장이다.

"아니 오히려 동이에게는 그것이 더욱 큰 압박이 있을 것이며 그의 정신을 크게 병들게 했을 겁니다" 유원권씨는 고도의 심리적 고문이 최씨를 죽음으로 내몰



고문에 의한 인간 파괴 끝까지 않았다

박종철 고문치사 주범 대공분실 악령 여전

"폐인만들기 위해 약물투여, 진상규명 하겠다"

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료나 후배들의 고문은 키가올어 들고 또 함께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고문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체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학교 동료인 유원권(31)씨는, "이제껏 이러한 동이의 자존심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히면서 그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것인지도 모릅니다"라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관행, 특히 정치범 등 확산병에 대한 조사과정의 비인간성에 있다고 말한다. 즉 고문의 후유증이 최씨를 죽음으로 내몰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최씨가 후배들에 남긴 마지막

생한 히나히나기 정찬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낄날이 감시받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개인의 시생활을 감시하고 침해한다면 도대체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무엇이란 믿어 니까?" 라고 반문한다.

민장고를 붙여주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7월 초경에 심한 불면증과 공포증세를 보여서 신경인정제이며 구치소 의 무과에서 준 약을 먹은 후 반작과 실이증세가 나타나 7월 말경 겨우 종로신정정신과 감방후원정에게 1차 외래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구치소 밖에서의 치료가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김근대씨는 그의 탄원서에서 "고문, 그것은 마음내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느끼셨습니까"라고 쓰고 있어, 윤씨의 말을 뒷받침해준다. 최동씨의 죽음은 5공시진 그 후한 고문의 악몽을 6공에서 되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90.
8.9.호노거레

시한폭탄 인권문제 새 파문

시국관련 출소자 분신자살 충격

대학생 출신 노동자 최동(30) 씨의 분신자살(〈한겨레신문〉 8월 15일 보도) 사건으로 노동운동권이 대하게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최씨 가족이 인도회사건 출소자들은 최씨가 지난해 4월 2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인행된 뒤 더욱 인행자들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유독 최씨만이 인도회와 관련이 전혀 없는 북한과의 관계·주식과 상관관대운동권 계보 등에 대해 심층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최씨가 서울구치소로 가기 전까지 약 20여일 동안 대공분실쪽의 조사를 받을 때 며칠씩 삼을 안게우는가하면 "안기부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를 지언시킴 목적으로 인행 하루 뒤인 4월 29일 유조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해를 하고 다시 5월 19일께에는 첫술로 목을 찌르는 등 자해리는 '마지막 저항수단'을 동원했다.

이와 관련 치안본부측은 "구타 등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도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국관련자들 대공분실에서 조사한 때도 고문 등의 가혹행위는 없었다"면서 "마중철분 사건 이후 대공분실은 수사에 있어 강압적인 과거의 진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분실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가혹행위가 없었을 가능성은

들에 따르면 5월 20일 입김된 최씨는 두 차례에 걸쳐 경찰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구치소에서 몇 차례 소독야·만창교만 붙이는 정도의 외상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달만 동안 불명상태에 빠지는 등 우울증 상태는 의화되고 있었다. 구치소측은 7월 초 의무과에서 한 차례 '신경안정제' 투약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그 뒤 모를 동안 말작 및 실야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말에야 구치소측의 외래진료 허가가 나와 최씨를 종로신경정신과 의원 김병후 원장에게 진찰시킨 결과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구치소 밖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래도 최씨는 조치가 없자 인도회사건 가족들의 구치소 민회대기실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야복부어 진정공개' 성화한 치료를 요구

정신적 고문→자해→후유증 시달려 장기치료 못받아 악화...죽음 이르러

분신 등 심각한 정신적 압박이 가해지 결국 2차례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공안합수부가 원천봉쇄 상태에서 이같이 광범위한 조석관계를 심층조사받고 그것도 인행자들을 각각 별개로 분리시켜 당시간 반복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은 끝도 없었으며 안기부로 넘어갈 경우 건너지 못한 것이라며 위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경찰이 최씨의 해석을 담은 사건 30여점을 제시한 것도 자해에 이르게 한 주요원인이라고 인도회 관련자들은 주장한다.

경찰이 썩은 철근 건물에서 사건, 이삿짐 옮기는 사건 등 인행되기 전 한달만 동안의 해석을 엮은 갖가지 사건을 제시함에 따라 '경찰의 심오한 추적수사로 부친가의 노동운동 조직이 모두 파괴됐다'고 생각하게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씨는 수사

인도회사건의 변론을 받은 변호사들도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미화 변호사도 폭력 등의 가혹행위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과연한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번 이유로 자해를 했는지 묻지 않았지만 4월 29일 1차 자해 이후 최씨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5월 19일의 2차 자해 이후에는 그 상태가 훨씬 심각한 자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과 등 동료 출소자들은 "물리적 고문은 아닐지라도 공안합수과장에서 최씨에게 가해진 갖가지 압박은 것은 정신적 고문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구치소에서 이미 주시리장에서 생겨난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태가 훨씬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를 계속 민회해 온 가족

하는 농장 등을 빌린 끝에 최씨는 9월 중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출소 뒤 종로신경정신과 고려신경정신의원 등에서 입원치료 치료를 계속해 왔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4월 28일에는 부친상 중동의 인행방에서 인행봉을 괴위놓고 자살을 시도해 모를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처럼 강한 수사와 압박에서의 고문·자해·우울증, 구치소에서의 치료소홀과 정신질환 의화 등의 요인이 겹쳐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특히 노동운동·노동운동·노동운동·노동운동·노동운동·노동운동의 장려에서 알 수 있듯 80년대 운동권의 큰 흐름을 이끌어온 시대의 거장이라는 충격적인 실적을 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논쟁을 물리 일으킬 조짐을 보이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백기철 정재권 기사〉

기되었다.
8일 대법
장난 88년
상원형식으로
조직법 개
위에서조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당 이인제
형식으로
상태에서
을 반영하
된 것이
민주당 재
마라 대법
가능성이
대법원
한 위헌행
불안 제출
법원에산안
의조항 신
일장(헌행
법원장 63
이 제임명
사 인사에
을 주요 내
이같은 조

분신 장자

속보= 국가
김해 있다
등으로 시
간대에서 분
이 장래식이
씨의 모교인
노동자장의
후과 친지들

이에 따라
상대면
김씨는 기
동운농민

탈 조

8일 오전 5
공 인의동
층 86층대
김대철차대
김해대 조사
등 2중대 소
이 유리장을
뒤이따러 숨
이날 김씨의

이 김
이다...
모학교
학교의
장지원
공공
이다.

비
명
학

대
소
수
명
을
부
법
원
장
로
부
로

기
등
한
비
명
했

기
양
판
의
변
해

과
급
판
도
는
기

崔東씨 만주 노동자 菲
全勞協을 제야단체
수반으로 활동한 노
동운동가이다. 8월 10
일 30살의 나이로 만
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김정하고 정씨는 유과와 회
의에 光州 5월 18일이니
鐵道 廣石 모란역에 이르
러 동차표이중 선하하기로
했다.
반장은 오느니와 함양대방
원 연합회에서 있던 예정이
며 임의는 최씨관대 교정
에서 갖기로 했다.

拷問이 빛은人間 파괴의 총격

분신자살한 崔東씨



분신자살한 崔東씨

대하시 제정당후 5공
배 비루제정당과 노동운동
하다 구속에 되었다. 崔東
최씨는 만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해고勞組委員長 복직판결

회사서 한달째 묵살

俄旺 新양성(新陽) 廣石 廣石
水原 任具(任具) 廣石 廣石



회사가 무단결근 등의 이유
해서 해고시킨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직시키고 해
고기간 동안 받았던 임금도
고지하라고 재판부 결정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
고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
았지만 해고 무효라고 결
정했다.

최씨가 만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최씨는 만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최씨는 만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반독재 노동운동으로 투옥 2번

피해망상 심해 자살기도 수차례

최씨는 만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최씨는 만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최씨는 만주에서 30살의 나이로
최씨의 정체를 탐문하는
자정(5월)으로 처음으로

부음

張씨태신경파총회
장 張氏태신경파총회
장 張氏태신경파총회
장 張氏태신경파총회

東亞(東亞)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출소 시국사범 분신 자살

성대 제적생 “고문후유증 시달렸다” 가족주장



김사범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수감됐던 대학생 출신 노동자가 출소 뒤 신경쇠약 등으로 시달려오다 분신자살했다.

7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상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403호 강의실에서 김동(30·상권전대 국문과 88년 재학·사진)씨가 시너를 혼합해 뿌리고 상당불로 불을 붙인 뒤 2층 화장실로 뛰어내려와 수돗물을 붙이려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 학교 자인대 수학과에서 실험부일을 하는 김아무개(16·이)양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씨씨는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조사받은 도중 자해한 뒤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9월 초순엔 김·명씨에 입회하는 등 원에게서 상당적인 영향을 해오지 못했음으로 알려졌다.

씨씨는 지난 83년 5월27일 김주권원 고대시위를 주도해 김희 및 사위에 관한 범죄 위반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하고 84년 3월 출소했으며, 이후 부친에서 노동운동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4월 '인친·부친노동자회' 사건에 연루돼 홍재동·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

조사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

씨씨의 어머니 김순옥(51)씨는 “이·이 김씨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며 “김씨에 연행되기 전까지 어머니는 정상적이었었다”고 주장했다.

씨씨는 연행된 지 하루 뒤인 4월20일 대공분실에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못이기 못해 모자리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카 5cm 가량 떨어지고, 대공분실에서 조사가 계속되던 5월19일엔 입회장이던 서울 서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향신료 등을 뿌려 머리카 15cm 가량 더 떨어진 뒤 모자 밑으로 숨겨 두는 등 자해행위를 계속 강행명입에 가 계속되는 것을 알리었다.

이에 대해 치안본부 측은 “당시 금다 등 고문행위는 제대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이 씨간의 면담을 받았던 형사차 변호사는 “처음 연행된 뒤 48시간 가량 감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해행위도 너무 심각하게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출소된 뒤 씨씨의 병상사립에서는 “구치소에서 가해진 음모 앞에서 씨씨가 의도했던 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각 구치소에서 당했던 예가기는 받아 내지 않았지만 1개월 사립입니다. 부끄러워 고 부당한 인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전이보다 더럽습니다”라는 내용의 씨씨 편지 메모가 발견됐다.

철교서 여학생3명 참사 달리던 열차 미처 못피해

[서천=순규성 기자] 7일 낮 12시30분께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신암리 후동천 정청천 철교위(천안 기점 1백24.5km)를 건너던 김경화(17·여·경남 장승포시 읍포동 주공아파트 14동 208호·장승포고등학교1·선희(15·여·장승포어중2)양 자매와 친구 하인선(17·여·주공아파트 101동 303호·고현여고1)양 등 3명이 장항읍 떠나 서울로 가던 통일호 422원차(기관사 황인훈·47·서울기관차사부소 소속)에 치어 모두 2차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통일호가 급커브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50m 앞에서 철교위를 건너던 김양 등을 발견, 급제동했으나 김양 등이 미처 피하지 못해 일어났다.

김양 등은 판교면 주너리에 사는 외삼촌 이원덕(54)씨 집에 놀러왔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가수 변진섭 매니저
가족들이 실종 신고

가수 변진섭(25)씨의 외삼촌이자 매니저인 이종규(43·서울 동

작구 상53동 256 14)씨가 지난 6일 오후 9시께 집에서 영등포경찰서 형사를 지치하는 30대 남인 2명과 함께 나간 뒤 소식이 끊기자 가족들이 7일 오전 11시30분께 노동당경찰청사에 실종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실종된 지 하루만인 7일 오후 7시5분께, 변씨의 어머니 변정원(58)씨가 급부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추조해하는 복수리로 “방안대금을 받으리 사내에 나와 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이 회사의 직원이 말했다.

신뢰의 現代 사랑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립니다

여름상품 마감!

사랑 평안하(6번) 745-2699
하 최수호
동대문구 745-3718
이진영
송인숙

피문

2년 5월20일 입감된 최차래에 걸쳐 경찰병원 2차는 뒤 구치소에서 소독약·만창고만 붙이기 외상치료를 받았다. 1달만 동안 복면상태에 우울증 상태는 악화했다. 구치소쪽은 7월초부터 한차례 '신경안정제'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보름 동안 발이 중세를 보인 것으로

야 구치소쪽의 외래진단과 최차래를 종로신 의원 김병후 원장에게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소박 치료'가 필요하냐 나왔다. 그래도 별다른 처방이 없자 인노회사건 구치소 민회대기실에 출입시키고 '약물투여' '정확한 치료'를 요구

달려 가리라

동을 벌인 끝에 최차래를 김행유에로 풀려났

종로신경정신과 고려의원 등에서 입원·통원 계속해 왔으나 "양태" 없었다. 지난 4월28일 시 중동의 월세방에서 피위 놓고 자살을 기도한 입원하기도 했다. 이치된 경찰 수사과정 '자해·우울증, 구치 치료소홀과 정신질환 요인이 심치 자살'에 주시된다.

은 특히 그동안 학생 → 노동운동 → 무우 등 시 알 수 있듯 80년대 큰 흐름을 걸은 사이라는 충격적인 성격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위요될 조짐을 보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된다.
<백기철 정재권 기자>

지난 88년12월 대법원이 마련해 청원형식으로 국회에 보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조차 한발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개정안은 당시 민주당 이인제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당사자인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3당통합 이후 민주당 제출 개정안이 철회됨에 따라 대법원 안의 내용도 밀재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대법원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법원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인정 △정부의 법원에 대한 김연에 대법원장 등의 조항 신설 △법원장 65살로 인정(현행은 대법관 65살, 고등법원장 63살, 판사 60살) △판사의 재임명 탈락조건 명문화 △판사 인사에 대법관 의견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88.9.20.경향신문의 동재나

관계되는 법률안을 국회에 보내 청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금까지 정부 부처인 법무부를 거치거나 국회의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형식의 문재점을 개선, 의원입법 요청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에서 국회의원과 행정부만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어차피 법원 관계 법률을 법원에서 기안하는 것이 옳다는 선입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동안 국회 법사위에 청원 등의 방법으로 법률안을 보내거나 법무부를 거쳐 법원관계 법률을 개정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및 법무부의 간섭 등으로 법률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상임등기제도 개정을 위해 국회에 보낸 상임 개정안과 4·4송사건원칙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

분신 최동씨 '민주 노동자장'

장지 망월동 계획 11일 성대서

속보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다 최동씨 뒤 친척들이 등으로 지원되어 7월 오전 한양대에서 분신자살한 최동(30)씨의 장례식이 오는 11일 오전 최씨의 모교인 상원고등학교에서 '민주 노동자장'으로 열린다고 8일 가족과 친척들이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이에 따라 '인노회사건' 관련자, 상대민주동맹회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상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과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단체 등 각 사회단체들과

장례위원회 구성 및 장례절차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상대준비위는 또 최씨의 장지를 광주 망월동 묘지로 잠정결정하고 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안당 평민당 부대법원은 최씨의 자살과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고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열적 반정부 부대법원도 진실을 적극 규명한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탈영뒤 붙잡힌 전경 조사받다 투신 자살

8월 오전 5시20분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지경 형사기동대 7층 86호에 3대부반에서 건물감찰대원 1명(탈영) 혐의로 인행돼 조사를 받던 강기도강 기동 2층에 소속 김승철(21) 이강이 유리창을 깨고 20m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이날 김씨의 함께 인행돼 조사

를 받던 장군 김원식(22·종로 5동 1인)씨에 따르면 3대부반 감찰에서 조사를 받던 김 이강이 급작적 1.2m 높이의 유리창을 뚫으며 깨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김 이강이 비열간격인 내우를 건널 수 없어 탈영했다고 '자주 말했다'고 진술했다.



8.10 '인간 파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이른바 '인노회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최동씨가 지난 7일 한양대에서 분신자살을 했다. 단순한 자살로 보였던 이 사건의 이면에 인간성을 파괴하는 6공화국의 인권유린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최씨를 당초 연행하여 수사했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구타 등 가혹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한편 최씨의 유가족과 사건 관련자들은 그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 동안 며칠씩 심을 안개우리가 하민 안기부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이상의 가혹행위는 없다. '갑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그것을 입증한다. 더구나 '안기부로 보내겠다'는 말은 고립무원의 밀실에서 위축되어 있는 피의자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된다.

이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최씨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몇차례 자해행위를 하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치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최씨의 정신질환이 진행되어 있었고 가족이 끊임없이 항의와 진정을 계속했으며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구치소밖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씨의 죽음과 관련된 이런 사정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자살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타살'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나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사관행 또는 행형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종철씨 고문살해가 폭로된 뒤에도 수사기관의 만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문익환 목사와 김병관씨의 경우처럼 재소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사례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이 바로잡히기는커녕 악화되어 가는 까닭은 6공화국의 반인권정책에 있다. 고문의 온상이 되었던 '대공분실'은 마땅히 치안본부의 한 부서로 되돌아가야 한다. 재소자들에 대한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게을리한 행정당국의 책임자들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바로 지금 최씨의 자살을 빚은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는 일은 또다른 박종철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타이포 뉴이스트

“여성의 유망직종 - 평생직업”

전문교수 직강 - 6개월과정

- 특전: ① 타이포 운영지원-시설지원 ■ 마감: 1990. 8. 20 (월)
- ② 타이포 취업추진-평생회원 ■ 신청: 745-4575, 763-4827 -
- 자격: 고졸이상 (25~55세) ■ 장소: 기독교방송(종로5가) 3층 310호

타이포시필요한 분 : 745-4575 타이포협회

기독교방송 문화센터

이들은 미지급된 6월분 상여금 50%도 회사쪽이 지난달만까
의 일관된 주장이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회사쪽은
지난달 20일 폐업철회 조건으로
합의한 지서 7개항 중 하나도
이행한 게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지급된 6월분 상여
금 50%도 회사쪽이 지난달만까

결한 모든 직원을 기
결정했다.
이은경(39) 노조위원
조집행부가 무력하다는
말을 만큼 노조원들의
분노가 크다"면서 "회사
상장세를 바꾸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순

90.8.10

한겨레 생활광고

상세한 것은 생활광고팀
(☎ 672-3322 교) 651~2)으로 상의 바랍니다.
FAX: 672-0675

의견

우리의 동지 최동을 죽유으로
몰아간 치안본부 대공분실음
해체하라!

성대 5.25 동지 일동

최동형!
필안하하십시오

성대심산연구회 동문 일동

1. 의존 에 속의
2. 소중한 사를
3. 모범을 창출

'노동법 해설'과 '새벽'을 통
깨우쳐 주신 장영국 선생
부산의 노동

원상복직 추진위원 심충보 정
지극히 부당하고, 해직
전교조 합법성은 인정

문교부장관은 물러나십시오

참교육을 열망하는 서울대 1정연수교사 일동

최동 동지여
해방과 통일로 거듭나라!
자주·민주·통일을 열망하는
부천의 노동자들

8.10
분신자살 최동씨 장례뒤
홍제동 대공분실앞 노제
장지 망월동 화장

속보=지난 7일 한양대 교내에서
분신자살한 최동(30)씨의 '민주
노동자장유 추진중앙 장례위원
회(위원장 신철영 전최동운동
단체협의회 '공동의장')는 9일 최
씨의 장지를 평주 망월동 묘지로
회장하는 한편 10일 오후 7시
한양대병원 영안실앞에서 '고문
살인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심했다.
장례위원회는 이의 함께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성균관대에서
양간식을 갖고 뒤 12시30분 홍제
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노
제 등 치안 뒤 장지인 망월동 망월
동 묘지에 직신을 일관한 개이
라고 밝혔다.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열사 故 최동 노동자장

“이 땅의 노동 해방을 위하여 온 몸을 불
사르다 노태우 정권의 폭압적 고문의 후
유증으로 분신 자살한 故 최동 열사의 장
례를 민주 노동자 장으로 치르고자 합니
다.”

- 날 짜: 1990년 8월 11일(토)
- 발 인: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 7시 30분
- 영결식: 성균관대 문과내 하얏 9시 30분
- 노 제: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앞 12시 30분
- 장 지: 망월동 5·18 묘지

*8월 10일 19시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 앞에서
애국열사고 최동 폭압적고문 규탄대회를 갖습니다.

밀실수사 폭압적고문 대공분실 해체하라!!!

고 문: 문익환, 백기완, 박형규, 김대중, 이기택,
이소선, 권처홍, 박창호, 신창균, 이창복,
지 선, 박영모, 배종렬, 한상렬, 김승호,
천승세, 김상기

장례위원장: 신철영

애국열사 故 최동 노동자장 장례위원회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10일

시키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남시 중원구 하산은동 37-6-1 남서울컨트리클럽 뒤쪽 3만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하루 9백50t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이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하산은동 등 이웃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운중천에 흘러들어 한강지류인 탄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립장 설치 뒤 과리 등 해

주민들의 식수난을 덜어주기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2백84가구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으나 가구당 47만7천원씩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돼 일부 주민들은 "시가 오염 책임이 있으니 상수도를 무상으로 설치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 이웃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폐수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친물수처리시설을 오는 10월부터 가동할

분신 최동씨 어제 영결식

각계 8백여명 참석...망월동에 안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한 뒤 신경쇠약 등으로 시달려오던 중 지난 7일 분신자살한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 고 최동(30·성균관대 국문3 재적)씨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10시 최씨 모교인 성균관대 문과대 앞 광장에서 '애국열사 고 최동 동지 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영결식에는 최씨의 어머니 김순옥(56)씨 등 유족 20여명과 신창균·이창복 전민련 공동의장, 평민당 박영록 부총재 등 각계 인사 8백여명이 참석, 고인을 추모했다.

영결식에서 박형규 목사는 조사를 통해 "고인은 인간의 삶이 의세와 내부 독립세력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서 학생은 동리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고 최씨의 투쟁을 높이 평가했다. 최씨는 "인간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결식장에는 최씨의 연행이 유예된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동료 이성우(30), 고남석(33)씨가 나타나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최씨 어머니 김씨를 붙잡고 오열하기도 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최씨가 강제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치안본

부 대공본실에서 노제를 지내려 했으나 경찰이 성균관대 앞길에서부터 운구행렬을 막는 바람에 좌절됐다.

학생 및 유족 5백여명은 이에 항의, 2시간여 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오후 2시30분경 길옆의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장지인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향했다. 시신은 오후 늦게 안장됐다.

기술검정 합격자 발표

한국직업훈련공단은 11일 국가 기술자격검정기술사 제33회 최종 합격자 3백13명을 발표했다.

최고득점자는 산업용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에 응시한 구본열(36·오뚜기식품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씨이고 최연장자는 트럭 기술사(철도)의 문순경(60·철도청 철도건설청장)씨, 최연소자는 금속 기술사(인쇄)의 이근우(30·대우기술관리부 과장)씨가 각각 차지했다.

KAL기 엔진고장 이륙못해

서울속초 승객 80명 대체기 요구 항의

11일 낮 12시35분 서울을 출발, 속초로 가려던 대한항공 173편 국내 여객기가 엔진고장으로 이륙을 못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80여명이 대체기 요구



'고문후유증'으로 시달리다 분신자살한 노동운동가 고 최동씨의 운구행렬이 11일 성균관대 교정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장지인 광주 망월동 5·18묘역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변재성 기자>

"연수제도 개선" 농성관련 교사 4명 직위해제

전남교위 사립교사 4명은 재단에 징계 지시

[광주=김진기 기자] 전남도교위는 11일 중동 1·2교 재단연수 교사 4명 중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2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하는 수강 거부, 농성 사태와 관련해 차명오(31·장흥교)

교사 등 공립학교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여 징계의에 최부하고 김순환(31·장흥교) 교사를 사립학교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소속 재단쪽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해설 13면>

교위는 또 연수원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석중 전남교원연수원장을 경고조처하고, 연수여비를 지난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재단쪽에 경고조처하기로 했다.

도교위에 따르면 이들 교사 8명은 지난달 18일부터 전남 담양군 남면 충의교육원에서 자격연

연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조선에 또 불 4명 사망·3명 중화상

(전남=김진기 기자) 전남 옥구군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남쪽 21마일 해상에서 전남 여수 대동해운 소속 1,128t급 유조선 서진호(선장 김정채·52)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기관장 윤정길(43), 갑판장 김현종(34), 갑판원 김영선(34), 조타수 박현남(37)씨 등 4명이 불에 타 숨지고, 갑판원 김종필(23)씨 등 선원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 이권개최했다 92며 11년 18

"내아들 동이의 10년한을 풀기 위해서도 여기서 쓰러지진 않을 거야.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지난 11일 성대 교문앞에서 하 안소복을 입고 땅을 치며 울부짖던 최동열사(30)의 어머니 김순옥씨.

서부터 죽음에 이른 민주열사들의 수는 무려 10명을 넘고 있으며, 7,80년대 독재정권의 폭압에 쓰러져간 분들까지 합하면 백여명에 이른다. 이중에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을 내던진 분으로부터 의문의 죽음, 폭

살이라는 것이 사체를 직접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또한 극한적인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문·폭력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들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

독재정권이 존재함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수 없는 세상은 그 근원을 깨끗이 없애버렸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들의 영정을 꺼안고 먼저간 아들을 원망하기 보다 아들을 죽

우리사회의



고문기술자는 활개치고...

② 근절되지 않는 고문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휴유증으로 폐인이 되었던 한 노동자가 고귀한 인간성마저도 철저히 파괴하려는 정권의 반인간적 작태를 만천하에 폭로하며 불꽃으로 산화해갔다.
 88년이후 6공화국이 들어서면

행사 등 모두 정권의 반인간적 행위에 의한 죽음들이다. 작년에 일어난 조선대 이철규열사와 같은 수많은 의문사들은 가족·애인과의 불화 내지는 단순사고로 인한 죽음이라는 정권의 왜곡보도와는 달리 많은 의문점들로 인해 사고사를 가장한 정권에 의한 타

다는 것조차 무색한 실정이다.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 취조종고문으로 인해 죽고, 고문기술자로 수배되었던 이근안 경감은 분명 사람은 존재하나 크 실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 2년째 오리무중 상태이다. 결국 현재의 반인권적 상황은

음으로 내몬 정권의 반인간적 작태에 분노하며 내뿜는 아버지의 외침은 비단 최동열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리라. "싸움은 이제부터야.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가 지는거야. 우리 자식들의 한은 우리가 풀어줘야지..." 원라미 기자

민중시대 정기구독자 모집

“ 민중당 창당의 밝은 소식을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

민중시대 정기구독자가 되시면 매월 2화 민중시대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구독료: 1년치 1만원(발송료 포함)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재정사업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4-6 신영빌딩 4층

이 부분을 잘라서 지금 즉시 신청하십시오.(대금은 온라인으로)

민중시대 정기구독자 신청서

이름 :	직업 :
주소 :	(전화)

민중당 또는 민중시대에 보내는 말씀

민중시대를 여러분

새로운 민중언론을 창출하기. 절망과 고통속에서 인간에 대. 취가 없는 세상, 민중시대의. 눈과 귀를 밝히겠습니다.

내 용

- 독자광장 : 시·수필·공트·고발·제
- 현장통신 : 소속한 단체의 활동소
- 열린마당 : 제반 시사현안에 대한
- 시 평 : 제반 시사현안에 대한
- 논 단 : 제반 시사현안에 대한

기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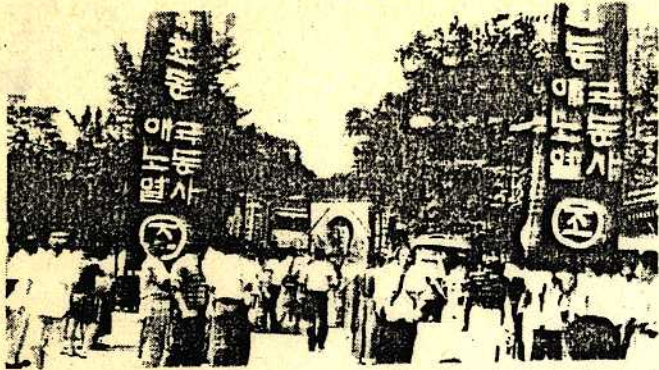
매월 10일, 25일까지

보낼곳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4-6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고문 후유증으로 분신자살한 최동씨 망월동 묘역에 안장

—경찰봉쇄로 대공분실앞 노제는 무산—



죽음으로 항거한 최동씨의 장례행렬

지난 11일 고문후유증으로 한양대에서 분신자살한 최동씨의 장례식이 치러져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장됐다.

'애국열사 고 최동 노동자장'으로 치러진 이날의 장례식은 오전 7시 30분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오전 10시경 최씨의 모교인 성균관대 문과대 운동장에서 영결식을 갖고 오후 2시경 서울을 떠나 저녁 11시경 광주에 도착, 다음날 새벽 3시에 하관식을 마쳤다.

박형규 목사, 권처홍(민기협공동의장) 박창호(박영진열사아버지) 씨, 신창균 이창복 자선스님(전민련공동의장), 김승호(노운협 공동의장)씨 등 각계 인사를 비롯 노동자 학생 시민 등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씨의 대학동료 서강석(31)씨의 사회로 진행된 영결식은 장례위원장 신철영(노운협공동의장)씨의 개식사와 박형규 장례위 고문 등 각계 인사들의 조사로 이어졌다.

특히 영결식장에는 최씨와 같은 사건으로 현재 수배중인 고남석(32) 이성우(30)씨가 나와 최씨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오전 11시45분경 영결식을 모두 끝낸 장례행렬은 최씨가 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

에서 노제를 지내기 위해 홍제동으로 향했으나 성대입구에서 5백여명의 경찰에 의해 지지 당했다. 경찰은 '일사의 뜻 이어받아 노태우정권 타도하자'하는 장례차량 옆에 붙인 흰수마과 스피커를 뺏 것을 요구하며 장례행렬을 가로막았다. 이에 연도의 시민들까지 합세해 "밀실수사 고문 살인 치안본부 대공분실 해체하라" "장례행렬 가로막는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장례행렬과 함께 외쳤다.

오후 2시경 노상토른을 통해 일단 경찰측의 요구로 받아들여기로 한 주최측은 4대의 버스를 비롯한

8대의 차량에 분승하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홍제동을 향하는 모든 길목을 경찰이 검점으로 가로막아 대공분실 앞에서의 노제는 치르지 못한 채 광주로 떠났다.

분신자살한 최동씨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과 관련 지난해 4월2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육체적 정신적 압박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두번이나 자해를 했으며,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실어증 등으로 고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후 최씨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는가" "감시당하고 있다" "나를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등의 말을 자주해 극도의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전해졌으며 "나를 의도적으로 폐인으로 만든 진상을 밝혀달라" "죽음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산권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본부 발족

—개신교 43개 단체참가, 30여만권 보내기로

「공산권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본부」발족식이 지난 8월17일 소망교회에서 있었다.

동구공산권이 개혁, 개방정책에 따라 변화된 선교여건 아래 공산권 교회는 WCC에 성경·찬송가를 요청해왔는데 한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 43개 단체에서는 그동안 세차레에 걸쳐 준비한 끝에 이날 발족식을 갖게된 것이다.

동유럽 공산권국가인 소련, 체코, 루마니아 교회는 성경 3천만권을

요청해 왔는데 아시아지역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교회를 추가해 아시아지역에 3만권, 동구권에 30만권을 보내기로 했다.

발족식에는 정운상목사(운동본부장)의 사회, 한상면목사(공동의장)의 기도, 홍순우목사의 설교, 박선희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한편 운동에 참여코자하는 사람은 각 은행의 구좌와 기독교방송에 현금하면 된다.

또 한 젊음이 고문에 쓰러지다

온 나라가 범민족 대회 문제로 들썩일 때 8월6일 일간지 한 귀퉁이에 '고문후유증에 시달린 죽음'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조용히 실려 있었다.

89년 2월 인노회 사건과 관련되어 이적단체구성죄로 치안본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최동씨가 수사과정에서 가해진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고문에 시달리다 자해를 두번이나 기도하였고 그 결과 출소후에도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마치 신병을 비판한 자살로 보여지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의미는 결코 조용할 수가 없다. 최동씨의 죽음은 고문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문하는 자, 당하는 자 모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고문

고문은 육체를 파괴시키기 보다는 정신을 파괴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배에 굴복하게 하고, 고통에 굴복하게 해서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굴욕감과 폐배감으로 정신의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다. 작게는 자존의식에서 부터 더 나아가서는 비인간화를 강요하는 사회제도와의 투쟁도 불사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고문은 인간이 인간을 부정하는 가장 극악한 수단이며 그것은 고문을 차는 사람이나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고문이 존재하는 사회는 물질적인 재부가 제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했다고 볼수 없다.

고문 중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잠안재우기' 고문

고문은 그것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육체적인 자극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고문이 없어졌다고 볼수 없다. 전 민통련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을호씨는 고문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잠 안재우기' 고문이었다고 회술하였다. 인간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잠 안재우기 고문이다. 소리 안나는 이 고문에 문익환 목사님도 서경원 의원도, 수많은 양심수들이 외상없이 고문을 당했다. 고문은 상처부위의 크기에 따라 판가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바라 봐야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인권은 밀실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러나 고문의 근절을 외치는 목소리가 무색하게 사법부에서 박종철군을 고문으로 죽이고 이를 은폐하려다 구속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판결의 정치적 의미를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법이 고문을 허용한다는 것, 그것도 물증이 나지 않게 기술적으로 잘 처리만 한다면 사람이 죽어도 그것의 책임은 법이 묻지 않는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출소후에 그것도 자살이 명백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수사당국이 일말의 반성의 빛을 보일리는 없다. 법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보호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태로움을 느낀다.

노태우는 취임당시에 취임사를 통해 '...강압과 밀실안에서의 고문이 묵인되던 날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라며 인권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노태우의 인권개선의 의지는 과연 대공분실 밀실안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인간은 어느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예전에는 성인 무렵의 심리적 충격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받은 충격에 비해 정신병리를 덜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치수용소의 생존자, 월남참전군인과 전쟁포로, 테러리즘의 인질, 강간희생자 및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결과 이들이 유사한 정신병적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사를 받다가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한 제적생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된 자극이 공포상황에 나타났던 반응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헬리콥터 소리는 월남참전자에게 공포반응을, 폐쇄된 공간은 고문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다시 느끼게 한다.

정신병적 상태가 된 성폭행 피해자는 남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반응을 보이고 당시의 상황이 꿈속에 나타나 불안해 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감

전인격의 반응이다. 당시 경험의 극심한 정도보다는 그 충격이 한 인간에게 주는 의미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공포상황이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기 위해 굴욕적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은 자궁심에 커다란 손상을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인격의 황폐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어떤이는 자신이 당한 것과 비슷한 폭력을 다른사람에 가하고, 반대로 자신이 당했던 폭력과 비슷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정신의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양식



심리적 폭력 자살까지 부른다

분신으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저항하거나 피할 수도 없고 인간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공포상황이고, 인간에 의해 폭력이 행하여지며 끝내는 인격의 황폐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들 '피해자'들의 정신병리 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극심한 죄책감을 갖게된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고문의 피해자이고 폭력의 희생자임에도 이들은 원천적 죄의식을 갖는다. 의사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의식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공포상황 아래서 인간은 자기보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혐오감을 감내해야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합리화하고 가해자를 이해하려 하고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자기통제에 대한 위협들이 죄책감의 근원이 된다. 고문이나 협박 때문에 동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만 해도 죄의식을 느낀다. 바로 이러한 자기통제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공포로 작용하게 된다.

파블로프는 공포상황과 연관



김 병 후

정의 단절상태에서 '대인관계를 꺼리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희망을 잃는다. 결국 공포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생긴 불안이나 분노의 감정은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상실과 삶의 희망 상실은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떤 경우는 몇년이 지나서야 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포란 무엇일까? 공포는 자신에게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자각할 때 느끼는 고통스런 감정이다.

인간의 공포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카해질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포는

을 '공포로 인한 극심한 감정상태를 이겨내기 위한 방어적 행동'으로 설명하나, 참으로 비극적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대인관계를 꺼리고 무기력과 감정통제능력을 잃는 등의 문제 때문에 이차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주변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며 압력을 준다. 인간에 의한 폭력 때문에 다른 인간을 믿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가 인격의 한 부분을 지켜 타인을 해치는 대신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 때문에 생긴 분노를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폭 물리적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에 의해서도 정신병리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상황 이전에 이상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지극히 양심적이고 순수할수록 심리적 공포로 인한 정신병리를 더 일으키게 된다.

◇약력 △79년 연세대 의대 졸업 △86년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 취득 △현재 연세의대 외래강사·종로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인의협 사무국장

형사처벌이 정치탄압, 정치 보복의 목적으로 악용되던 시절, '증거의 여왕'이라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갖가지 형태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행하여져 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물고문, 성고문, 전기고문 등 인권이 보장되는 문명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문명적 범죄행위가 수사권의 행사라는 미명하에 바로 이 땅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를 상대로 하여 자행되었으며, 그러한 범죄의 극히 작은 부분만이 밝혀져 현재 그 범죄자들 가운데 실행행위를 담당한 일부의 하수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거나, 형사처벌이 준비되고 있다.

고문은 사라졌는가?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적어도 제6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는 고문 등 가혹행위는 있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이전 정권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전기고문·물고문 등이 되풀이되었다는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최강도의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만을 고문이라고 한정한다면, 수사대상자의 공포감·좌절감을 조장하는 행위, 정신적·육체적 저항능력을 떨어뜨리는 행위, 건전한 사고·판단능력을 파괴하는 행위 등은 정상적인 수사방식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8.14

재우지 않아 의지력과 판단력을 무너뜨리고, 동지들에 대한 배신을 강요하여 절망감을 주고, 그 사이 사이 낮은 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주어 마침내 자백 기타 필요한 정보를 얻어냄과 동시에 수사대상자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고도의 고문행위-가 이에 대한 한 젊은이의 목숨을 바친 고발을 통하여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인권유린·인격파괴를 초래하는 저강도 고문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문명사회일 수 없으며, 정부당국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부당국이 '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인권보장에 관한 어떤 내용의 약속을 하든지간에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저강도 고문행위를 그 수사방법의 적법한 부분으로 채용하고 있는 한, 인권탄압이라는 국내

젊은이의 죽음과 고문없는 세상

수 없으며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6공화국하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수사를 받은 한 젊은이가 고문 후유증으로 분신자살함으로써 인간을 파괴하는 고문의 현존을 강력히 증명하였다.

제6공화국에서도 고문의 문제는 적지 않게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자백에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의 전개도, 유죄의 입증도 하기 어려운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때에는 외부와의 집견차단, 잠안제우기, 추가적 정보제공의 강요 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고, 그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일관된 대응은, 이제 이전과 같은 고문은 결코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고문의 문제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정부당국의 고문폐지의 공언은 최강도의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전기고문·물고문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과시함과 아울러 그 이외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이나 낮은 강도의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의 수사는 고문이 아니라 적법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도의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이 일상화된 사회체제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고문에 대한 높은 역치,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행위들만을 고문으로 인식하는 것을 약용하여 지난 2~3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다른 사회적 비난을 받음이 없이 행하여진 또 다른 형태의 고문행위-외부와의 집견을 차단하여 공포감·좌절감을 주고, 잠을

의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저강도고문에 대한 폭로와 조사, 피고문자의 피해정도 등으로 인한 계반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문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민주화로 가는 길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민주주의 시기에 형식적으로 가리워졌던 고문의 문제를 새로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전에 활약했던 전기고문·물고문의 기술자들이 새로운 저강도 고문 기술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을지도 모른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시 고문없는 세상을 이루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번호사>

고 상반기 사업평가와 함께 하반기 사업방향 및 계획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5면>

중앙위원회는 "상반기에는 전노협이 갖태어나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분신 최동씨 망월묘역에 안장 경찰봉쇄로 대공분실 앞 노제는 무산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지난 7일 한양대 사회과학대 403호실에서 분신자살한 최동(30)씨의 장례식이 11일 치러져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장됐다. <관련기사 7면>

네 국열사 고 최동 노동자장으로 치러진 이날의 장례식은 오전 7시30분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에서 영답수님의 집례로 발인, 오전 10시경 최씨의 모교인 성균관대 문과대 운동장에서 영결식을 갖고 오후 2시경 서울을 떠나 저녁 11시경 광주에 도착, 다음날 새벽 3시에 하관식을 마쳤다.

박영규 목사, 권처용(민가협 공동의장) 학창호(박영진열사아버지)씨, 신창규 이창복 지선스님(전민련공동의장), 김승호(노운협 공동의장)씨 등 각계 인사들 비롯 노동자 학생 시민 등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씨의 대학동료 서강석(31)씨의 사회로 진행된 영결식은 장례위원장 신철영(노운협공동의장)씨의 개식사와 박영규 장례위 고문 등 각계 인사의 조사로 이어졌다.

특히 영결식장에는 최씨와 같은 사건으로 현재 수배중인 고남직(32) 이상우(30)씨가 나와 최씨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해 장내를 울연케 했다.

고 상반기 사업을 평가했다. 중앙위는 상반기 사업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조합원의 정치의식 향상'과 '전노협의 조직력량 확대강화'를 중시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계획성있는 사업배치

오전 11시45분경 영결식을 모두 끝낸 장례행렬은 최씨가 언행돼 조사를 받았던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노제를 지내기 위해 봉제등으로 향했으나 상대입구에서 5백여명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경찰은 '열사의 뜻' 이어 받아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는 장례차량 옆에 붙인 현수막과 스피커를 열 것을 요구하며 장례행렬을 가로막았다. 이에 연도의 시민들까지 합세해 "밀실수사 고문살인 치안본부 대공분실 해체하라" "장례행렬 가로막는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장례행렬과 함께 외쳤다.

오후 2시경 노상포문을 통해 일단 경찰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주최측은 4대의 버스를 비롯한 8대의 차량에 분승하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봉제등을 향하는 모든 길목을 경찰이 겹겹으로 가로막아 대공분실 앞에서의 노제는 치러지지 못한 채 광주로 떠났다.

분신자살한 최동씨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과 관련 지난해 4월2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육체적 정신적 압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두번이나 자해를 했으며,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



최동씨의 영정을 앞세우고 대공분실로 가기 위해 상대앞을 지나가고 있는 장례행렬. <한겨레신문 제공>

·실어증 등으로 고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후 최씨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될 하겠는가" "간사당하고 있다" "나를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등의 말을 자주해 극도의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전해졌으며 "나를 의도적으로 폐인으로 만든 진상을 밝혀달라" "죽음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동씨가 분신자살하자 인노회 관계자와 상대민주노동회 등 최씨의 동료들은 곧바로 장례대책위(위원장 신정길·33)를 구

성, 9일 정노협 전국노운협 등 노동계와 전민련 등 민주단체 인사들로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장례명칭을 '애국열사 최동 노동자장'으로 정했다. 최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한양대 부속병원에는 5일동안 인천·부천을 비롯 서울 안양 포항 등지의 노동자들과 재야단체, 평민·민주 등 정당관계자, 최씨의 동문, 학생 시민 등의 분향객이 줄을 이었다.

최씨의 동료들은 장례후 추모사업회를 조직해 최씨를 추모로 내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 노동자 관 각종 위원회에 노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지난 13일 노동자관련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라는 대정부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해당 각부처에 전달했다.

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늘날 경

하반기 투신투쟁, 악랄 및 민생문제 선투쟁을 주 내각제개혁으로 동참할 이들 과학사안으로 줄이 일상활동하는 내용으 와 관련한 교육하면서 에 맞게 배 전노협이 밝힌 주요인 기국회 시력 노동악법완안정보장법적해 정치권준한 일상화 모아 11월 투쟁을 질 또 지역 및 강화사업을 간에 전노협 위한 조직력

계·사회의 각 이익집하고 조화 정부가 당도 제라고 지적을 심의 산하 각종

민주노동열사 최동의 죽음을 기리며

지난 8월 7일 한양대 사회과학대 403호실에서 분신한 최동열사의 죽음은 반민주적인 정권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수히 자행되어 온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중에서도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분신자살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반민주적인 정권이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무기로 삼아온 고문 및 가혹행위가 그 양상에 있어 고문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온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 등과 같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과는 다른, 존엄성을 짓밟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신체에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것 이상의 정신적 파괴—이는 곧 사실상의 인간 파괴를 의미한다—를 가져오는 그러한 유형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자행되었고 그 가장 극적인 결과로써 분신자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문이나 가혹

행위는 그동안 실제로 엄청나게 발생하여 왔고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고문 이상으로 인간을 극도로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인내의 통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물리적·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고통을 가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을 보인 고문 희생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자들이 비교적 고문의 잔악성을 폭로하고, 그 진상의 규명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계속 받음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고기능이 파손된 경우는, 그것을 고문으로—명백한 정신적 고문으로—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고문으로 인한 피해사례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형의 고문 피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거의 대부분 입증되지 못한 채 묻혀 있는 것이다. 지난 83년 아르헨티나에서 오랜 군사파쇼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신경정신정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반드시 깊이 있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최동 열사의 경우에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는 80년대 운동의 대표성을 지니고 학생·노동 운동권에 속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젊은이가 노동운동 관련(89년 4월 인천·부촌민주노동자회)사건으로 치안본부 홍제동 대공3부에 연행돼 20여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간적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도 명백한 진상을 규명해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한 운동자가 엄청난 정신적 파문으로 말려앉아 심각한 정신성질환에 빠진 상태에 대하여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비통하게 분신 산화한 최동 열사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최동 열사가 엄청난 정신적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성 질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물론, 최동 열

사가 정신성 질환을 앓았고, 그 원인은 치안본부 대공3부에서 자행된 정신적(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48시간 잠을 안 재우는 등의)고문으로 인한 것임은 명확하다고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에 눈 아직 많은 근거들이 필요하다. 의학적, 법률적으로는 물론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최동 열사에게 가해졌던 엄청난 가혹행위를 명백히 고문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최동 열사는 왜 죽어야 했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89년 4월 홍제동 대공3부에서 20여일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으며, 최동 열사는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가? 그리고 최 열사가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자행되었길래 최 열사가 실어증, 극심한 불면증 및 신경쇠약증에 걸려야 했는가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것은 최 열사가 평소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이상증세가 있었다는 식의 악랄한 동작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음모가 노리고 있는 목적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는, 최동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하여 6공 정권 들어서(박종철 사건 이후) 외상을 수반하는 고문(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은 감소하는 대신 고도로 지능화되고 정신이나 심리에 가하는 고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사태를 뿌리 뽑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보장 및 고문에 대한 새롭고 엄밀한 규정이 정립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연행이나 수사도 철저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다. 열사는 갔지만 그가 남긴 큰뜻은 다시 이 땅에서 박종철, 최동과 같은 고문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반도덕적 인권유린을 일삼는 노정권을 타도하자고 분신으로 항변한 것이다. <민주노동열사최동열장례준비위원회 홍보부>

전민련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

민자당 일당독재는 추방되고, 장기집권음모는 분쇄되어야 합니다.

구경은, 그가 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울 수 밖에 없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씨는 80년 성균관대 규문과에 입학한 후 10여년간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반독재투쟁과 노동해방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학생운동을 할 때 동료들이나 부친에서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최씨는 대단히 원칙적이며 자신에 대해 철

관들이 내민, 인행된 때까지 헌신 보며 동안의 자신의 행적을 저 은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그 사진들 중에는 친구의 결혼식 사진, 신체의 이사진을 옮겨주는 사진 등 시킨다는 진한 편린이 있는 사진들도 있었으며, 같은 사진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최씨의 장래집행위장장을 받았던 신정길(33)씨는,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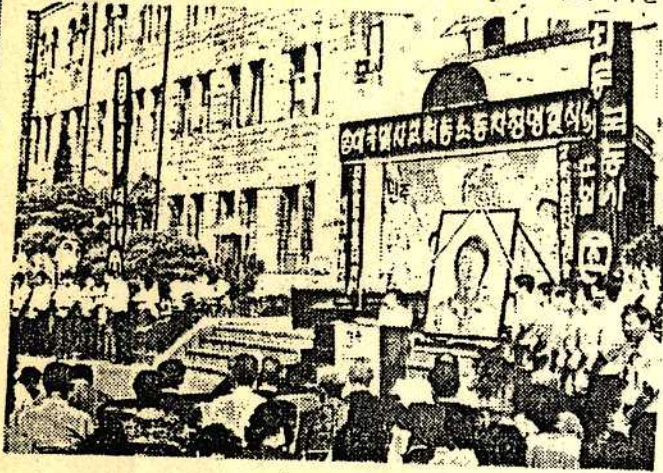
가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각 때문에 자해를 했다고 최씨가 말했다는 고 한다.

사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첫순대 규 문키유계 갈아 목을 찢기 기도가 1cm기량 찢어진 2인체의 자해는, 머리의 상처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그리고 잠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채 계속된 강압적 조사 때문이었을 것으로, 최씨 분신 5일전에 그를 받았다는 이교후(28)씨는 증언한다. 박씨는 "처음 자해의 동종 그리고 험박-공갈과 사진들 등이 빌미 강요하는 자백요구, 주로 밤에 조사를 하는 등으로 20여일간 거의 잠을 못자, 이 때 이미 수면기 등이 파괴되고 우울증과, 피해망상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한다.

의 상태는 극히 정상이었으며, 신령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었다고 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수사과정의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최동씨에 대한 고문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 지는 최씨의 그를 조사한 수사관에게 알 수 있다. 치안본부에서는 최씨에 대한 고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은 최씨의 동료들도 직접적인 신체적 고문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것은 조사기중에 죄를 짓지 않은 최씨에 대한 심리 강압의 분위기가, 그리고 특히 한달보류중인 시생활을 침해하며 최씨를 감시해 왔다는 사실 등은 물고문이나 전기고문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고문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게 동료들의 주장이다.

"아니, 오히려 동이에게는 그것이 더욱 큰 임박이었을 것이니 그의 정신을 크게 망하게 했을 겁니다." 윤일권씨는 고도의 심리적 고문이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고문에 의한 인간 파괴 끝까지 않았다

박종철 고문치사 주범 대공분실 악령 여전
"폐인만들기 위해 약물투여, 진상규명 하겠다"

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료나 후배들의 고문은 키기울어 듣고 또 함께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고문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체로 드러내지 않았다 고 한다.

그의 학교 동료인 윤일권(31)씨는, "이제껏 이러한 동이의 자존심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히면서 그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것인지도 모릅니다."라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괴관행, 특히 정치위동 화신범에 대한 조사과정의 비인간성에 있다고 말한다. 주 고문의 휴유증이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최씨가 홍제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간 것은 난 해 4월 28일이었다. 치본 대분실은 87년 1월 박종철씨를 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곳이며, 그 이전에도 김근태(45-진권 집행위위원장-구속중)씨의 고등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88 남영동에서 홍제동으로 옮겼을 김근태씨는 이곳을 '인간도살'로 표현했다.

최씨는 인천-부천지역을 호로 한 노동자들의 공개대체였던 인천-부천 민주노동(인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

생한 히나히나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남남이 감시받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개인의 시생활을 감시하고 침해한다면, 도대체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무엇이란 벌입니까?" 라고 반문한다.

결국 이러한 최씨의 충격은 전혀 잠을 채우지 않은채 험박과 공갈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조사과정과 결해돼 2인이나 자해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의 자해는 연행된 다음날 새벽기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7마늘이나 깨는 중상이었다. 인노회의 동료들과 특히 이 사건과 진해 관련이 있는 사진속의 사과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볼 지도 모른다는(최씨에 대한 조사는 인노회 관련보다는 오히려 성대운동권 등 인노회와 진해 관련이 없는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조사

반청교를 붙여주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7월 초경에 심한 불면증과 공포증세를 보이고 신정인정재미 구치소 의 무과에서 준 의약을 먹은 후 발작과 실이중세가 나타나 7월 말경 겨우 종료신정정신과 김명후-원정에게 1차 외래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새로 구치소 밖에서의 치료가 요구되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18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최씨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수사기관이 나를 폐인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했다"고 하면서, 다른 지립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진상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최근 최씨와 함께 형평에 놀라 갔었다는 비경호씨는, 최씨가 "갈 길은 민대 날은 저문다"며 죽음으로라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해 이를 말았다고 한다.

최씨의 죽음은 크게 2기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김근태씨는 그의 탄원서에서 "고문, 그것은 비유에 비유하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대로 피해적이고 많은 고통을 통해서 정리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라고 쓰고 있어, 유씨의 말을 뒷받침해준다.

최동씨의 죽음은 5공시권 그 슬한 고문의 악몽을 6공에서 되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슬한 노동자의 제아인사, 학생들이 구속되고 있는 데도,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없다.

"제2 제3의 이근안에 의한 보다 고도화된 인간파괴의 고문은 동이의 죽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동이의 죽음은 단지 그의 개인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최동씨와 함께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한 노동자의 말속에서 고문의 악몽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방양균 사건기록

1. 인적사항

생년월일 : 1957. 9. 1일생

학력 : 서경원 전 국회의원

주소 :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302동 604호

현재 : 2년 (10, 6살)와 처

2. 사건개요

서경원 전국회의원의 방북사건으로 인하여 1989. 6. 29일 연행되어 현재까지 구속 수감중임. 서의
원 방북사건으로 강제연행되어 남산 안전기획부 지하밀실에 도착되어 전문 수사관 4명 김군성 수
사관 외 3명 등 혹독한 구타로 외쪽 고막을 터지게 했으며 협박, 회유,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
을 당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외쪽 귀는 들리지 않고 신문이나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두통과 노이로제 증상을 보임. 수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은 미리 허위 날조된 조사내용을 써가지
고 와서 수사관 요구대로 대답을 안하니 안기부 김군성 수사관이 "목을 뺏줄로 걸어버려"라는
협박과 무릎을 꿇리고 뺨을 수십차례 때려 이마 외쪽 부분이 찢어짐. 신체 어느곳이든 구타하기
편리하기 위해 안경을 못쓰게 하고선 이곳 저곳을 무참히 구타.

경상도 말씨의 40대 안기부 과장이 무릎을 꿇려놓고 수십차례 뺨을 때려 졸도시킴. 또한 "여기가
어딘지 아나 이곳에서는 너 같은 놈 죽여 신문에 가장해버리면 끝이다. 월북하려다 아군에 피산
되었다고"라는 협박을 해대면서 권총 총구를 입에 물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며 "죽여버린다"며 위
협함.

벽과 책상에는 자해하지 못하도록 고무줄 씌우고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힌 후 야전침대 각
목으로 어깨 좌우측 신경부부터 다리 대퇴부 손 등을 2인조로 교대해가며 전문 수사관이 1시간
정도 구타로 혼절함. 찬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자 의자에 포박시켜놓고 다시 야전침대 각목으로
구타함. 다시 혼절 후 정신이 들어보니 온 전신이 피투성이였고 의사가 주사를 놓고 있었는데 눈
앞이 캄캄하고 심한 어지러움증이 있었음. 13일 동안 잠안재우기, 철야조사, 식사 후 즉시 조사
하기, 양치질도 못하게 했으며,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심지어 물도 못 마시게 했음.

당시 검사들은 고문 안했다고 했으며 판사가 고문 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변호사가 신체감
정을 요구함. 서울대 이정빈 교수는 신체감정 결과 노이로제 증상처럼 목을 짊누르고 숨을 못 쉬
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협심증과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등은 고문후유증이라는 감정서를 제
출했다.

3. 현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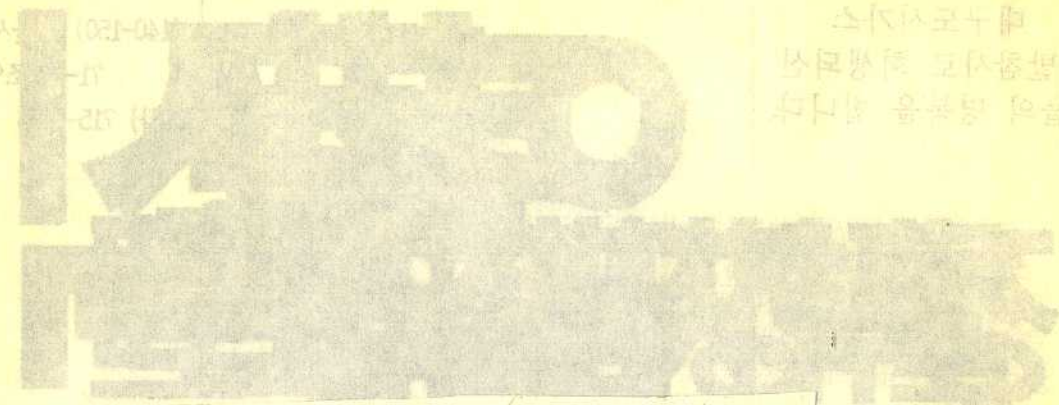
방양균씨는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1993. 11. 27일 구속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씨와 안종택 검사(현 인천지검 부장)를 독직폭행(고문) 등
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으나 94년 1월초에 이 사건은 서울지검으로 이송된 채 실질적인 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부인인 정순례씨가 한달에 두번 정도 면회를 가고 있으며 고문으로 인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책을 오래 못보고 노이로제 증상처럼 협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쪽 귀가 안 들린다.

방양균 사건기록 정리 나경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조 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43. 12. 15. 동아

잠안재우기 고문
 검사 수사관 고소
 徐敬元前의원 비서
 [전북] 徐敬元전원민의원

원의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房 앞판씨(38·당시 徐씨 비서관)가 자신을 수사했던 안기부 수사관 송근정씨와 담담잡사였던 안중환검사(현 인천지검부장검사)를 투죄폭행 혐의로 지난 27일 전주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房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89년 7월 안기부와 검찰에서 50일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귀가 잘들리지 않기도 실한 고문중요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주)한국방송공사



(주)한국방송공사

「密入北」房羊均 피고 구타拷問 가능성 있다

신체감정 **李正彬** 교수 소견서
徐敏元의 원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과 야전침대에 맞아 상처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내」의 소견서를
올릴 시 지법 10일 등 張慶三 판사
서울대 李正彬 교수는 18일
에게 보내왔다.

“방양군씨 상처 고문 가능성”

500 2층-11번

1989. 10. 19

이정빈 교수 소견서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서관 방양군(34) 씨의 양손과 이마에 난 상처는 각목 따위의 모가 난 둔기 및 주먹 등에 맞아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신체감정소견서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이정빈 교수는 18일 방씨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서울형사지법 1장경삼 판사 앞으로 보내, “방씨의 오른손 손등에 난 열창은 모가 난 둔기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전침대에 사용하는 막대기가 모가 난 것이 라면 방씨의 주장대로 야전침대

용 막대기에 맞아 이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신체감정서에서 방씨의 왼쪽 이마에 난 상처에 대해 “주먹으로 비껴 맞아 표피가 박탈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오른손 검지와 왼손 엄지의 상처도 “야전침대에 사용되는 막대기로 맞아 표피가 박탈된 뒤 생긴 반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방씨가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지난 7월초부터 8주가 지난 9월8일에 신체감정이 이뤄져 상처 발생시기에 대한 판정은 힘들지만 방씨의 주장이 틀렸다는 근거

는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철선 변호사 등 방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7월초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야전침대 각목으로 양손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등 고문을 받았다는 방씨의 주장에 따라 지난 8월28일 방씨의 상처에 대한 고문증거 보전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었다.

拷問 시비 爭點 攻防 치열할 듯

1989년 1월 13일

김영민 徐義元의 영수권 사건 관련 보도



임의성 없는 강제진술 有罪증거 안돼 "변호인 상투적인手法" 가혹행위 절대 없었다" 검찰

平民·檢察 "위신문제" 總力쏟아

김영민 徐義元의 영수권 사건 관련 보도. 김영민은 영수권 사건에서 김의원을 폭행하고,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영민이 김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김영민은 영수권 사건에서 김의원을 폭행하고,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영민이 김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김영민은 영수권 사건에서 김의원을 폭행하고,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영민이 김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김영민은 영수권 사건에서 김의원을 폭행하고,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영민이 김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의원은 김영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申載룡 기자】

“수사과정서 가혹행위”

1989. 9. 13

서의원사건 첫 공판 고금숙씨등 3명 진술

1면 2단

서의원·방비서 공판연기

방북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경원(52) 의원을 비롯, 모두 11명에 대한 첫공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신문에 앞서 평민당 대의협력위원장 이길재(50) 피고인과 정성현(44·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고금숙(38·여) 피고인 등은 모두 진술을 자청하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6월28일 안기부에 연행된 뒤 25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침대 각목으로 매

를 맞고 구둣발로 차이기도 했으며” 때문에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야 했다”면서 “여자인 나를 앞에 놓고 남자 수사관들이 겁을 주면서 ‘발가벗겨 거꾸로 매달아 놓겠다’는 등 협박을 해 공포 속에서 과거에 았았던 정신질환이 되살아날 것 같은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평민당 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22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그중 10일 이상은 꼬박 검찰청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변호사 접견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말하가는 싫지만 의자를 주지 않고 2~3시간씩 세워놓은 채 수사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기도 했다”고 말

했다.

정 피고인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구속영장의 남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검찰 직접신문에서 서 의원의 보좌관 김용래(38) 피고인은 “서 의원이 방북목적에 대해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을 실현, 민족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고 기자와 방북사실을 인터뷰했을 뿐 아니라 당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방북사실을 알리진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검찰의 소환 때문에 서 의원과 방양균 비서관에 대한 접견을 제대로 못했다고 공판 연기신청을 내 이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홍성담씨 '고문' 신체감정

서울형사지법 임채균 판사는 6일 평양축전 결계그림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 공동대표 홍성담(34)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314호 신문실에서 실시했다. 9. 07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감정에서 홍씨는 감정의사로 참가한 서울대병원 법의학과 이윤성씨와 일반의과 윤여규씨 등 2명에게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및 왼쪽 컷바퀴의 상처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또 무릎 등의 상처는 안기부 수사관이 무릎을 꿇린 채

침대봉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바람에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씨 등 감정의사 2명은 정밀한 감정을 위해 홍씨를 이날 오후 3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오후 6시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서의원 비서관 신체검증도

서울형사지법 장경삼 판사는 6일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서관 방양균(30)씨에 대한 신체검증을 315호 신문실에서 실시했다.

재판부는 방씨가 고문의 상처라고 주장하는 왼쪽 눈위와 양손

등의 작은 반점을 사진촬영했다.

방씨는 왼쪽 눈위의 상처는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피부가 터지는 바람에 생긴 상처이며 손등의 작은 반점은 각막으로 맞은 흔적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방씨에 대한 신체감정의사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고문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각정의사를 통해 신체감정을 실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다시입학

오대평학생회 1호부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동

- 1호부 113-10-131017
- 2호부 011-01-40281
- 3호부 02-18-32811-7
- 4호부 113-18249-13-001
- 5호부 105-10817-60107
- 6호부 012-21-0723-051

방양군씨 신체검증하기로

서의원 ~~사건~~ 관련 31

서울형사지법 장경삼 판사는 30일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비서관 방양군(34)씨의 고문피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방씨에 대한 신체검증 및 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 315호 신문실에서 열린 심리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곧 대학병원 의사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 방씨가 고문당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체검증·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홍성담·방양군씨 신체 감정

속보=서울형사지법 6단독 임채군 판사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족미술운동연합 공동대표 홍성담(34)씨에 대한 신체검증을 한 데 이어 홍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6일 오후 2시30분 서울형사지법 315호 신문실에서 서울대병원 전문 의사를 불러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방양군(30)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서울대병원에 의뢰한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장경삼 판사는 6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 315호 신문실에서 방씨에 대한 신체검증을 실시기로 했다.

방양군씨 상처 감정 의뢰

변호인단, 증거보전 청구

서경원 의원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방양군씨의 변호인단은 28일 방씨의 안면부와 왼쪽 손등의 상처에 대한 신체감정과 피고인의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심신감정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청

구서를 서울형사지법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증거보전청구서에서 "방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흔적이 소멸될 우려가 많으며 더 이상 지체하면 노이로제 등 정신과적 증세의 원인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판별키 곤란할 우려가 많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房羊均씨 「고문」 흔적
平民서 증거보전신청
平民黨은 28일 徐敬元의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중인 房
羊均씨가 수사과정에서 안면
부와 왼쪽손에 고문흔
과 노이로제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법에 대해 증거보전신청했
다.

89. 8. 29. 동아

“이길재·방양군씨 고문”

5002호-472 1989. 8. 25

평민당 접견 상처 증거보전 신청키로

이상수 평민당 대변인은 24일 서경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길재 대의협력위원장과 서 의원의 비서관 방양군씨가 조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방씨의 경우 상처 부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3일 오후 흥영기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이·방씨를 접견한 결과, “두 사람이 공안기관에서 잠을 제대로 못자는 고문을 받고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방씨의 경우 심한 노이로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뺨을 많이 맞아 왼쪽 눈위에 피멍이 남아 있으며 오른쪽

손등에는 야전침대 각목으로 얻어맞은 상처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고문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상흔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방씨가 접견시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이는 약물 투여 가능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길재 위원장의 경우 7월21일 검찰로 송치돼 8월 22일 기소될 때까지 잠을 안깨우는 고문과 협박에 견디다 못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검찰에서 3-4일째 철야조사를 받거나 잠을 적게 잘 때는 하루 10분 정

도 많이 잘 때는 1시간 정도 그것도 의자에서 눈을 붙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방씨가 변호인 접견에서 서 의원으로부터 방·복사실을 전해들은 것은 올해 6월 22일 오전이며 5만달러를 서 의원이 북한에서 받았다는 내용도 안기부 조사 때에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방씨는 또 이철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서 의원 방을 찾아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다는 자신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혔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이길재 위원장은 검찰 조사시

김 총재도 지난해 9월 서 의원으로부터 방복보고를 들었다고 자백했다’는 김 총재의 조서 사본을 검찰이 들고와 자백을 강요했다면서 조사도 이에 맞춰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관련 검찰은 이날 일부 언론에 방씨가 검찰에서 고문을 받은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 “접견 당시 방씨가 안기부에서의 고문 사실을 말할 뿐 검찰에서의 고문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교도관이 기록한 방씨와 변호사들과의 접견내용을 공개했다.

(접견내용 10면)

지난 두달 동안 이른바 공안정국을 떠받쳐준 서경원 의원 방복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지점에서 서 의원의 물론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과 ‘조작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영등포 을구 제선거 직후인 지난 19일에야 허용된 변호인 접견에서 김대중 총재의 1만달러 수수설과 4월보고설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나온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허위진술을 할지 모르나 그것은 항거할 수 없어서이므로 양해해 달라”고 배수진을 쳐버렸다.

23일에는 이길재 평민당 대의협력위원장과 방양군 비서관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다시 ‘고문

도리깨

1989. 8. 25

특히 방씨는 “검찰이 되풀이해서 허위사실을 시인토록 요구

잇따른 고문수사 주장

5002호-472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노이로제 증세까지 호소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을 모두 ‘믿을 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과학적인 검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지난

시절 이미 폭로되고 사실로 확인된 수많은 고문사례들을 교훈 삼아 이번 사건에서 다시 일고 있는 ‘고문수사 시비’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간첩사건에서 으레 터져나오는 억지 주장’으로 예단, 조사도 해보기 전에 무시해 버린다면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뿌러한 이유없이 거부했고 △김대중 총재 등의 혐의사실 부인에 대해 물증 제시나 서 의원과의 대질신문도 피한 채 기소방침을 발표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윤석인 기자>

“서의원 방북 6월에야 알아”

1989. 8. 25

검찰이 밝힌 방씨 변호인 접견 내용

다음은 23일 오후 있었던 방씨와 변호인단의 접견 내용.
 (홍영기) - 건강은 어떤가?
 (방양균) = 노이로제 상태다.
 (홍) = 옛날부터 노이로제 증상이 있었는가?
 = 본의 아니게 진술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이상수) - 안기부에 언제 갔나?
 = 6월29일 갔다.

= 안기부에서 그런대로 잤고 검찰조사시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잤다.
 (이) - 돈 1만달러를 받아온 적은 있는가?
 = 누군지는 몰라도 공항에서 신사를 만나서 받았다.
 (이) -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당 관련부분 내용은 무엇인가?
 = 서 의원과 가장 친한 사람

가?
 = 돈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 약이나 주사맞은 적 있는가?
 = 없다. 잠을 안자도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
 (홍) - (신문내용을 읽어주면서) 방 비서관이 돈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냐?
 = 여러번 반복해서 물어와 진 짜같이 생각되어 돈인지는 모르나 환종이에 쓴 것이 돈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잠 2시간밖에 못자도 이상하게 힘나”

(이) - 언제까지 있었다?
 = 7월21일까지 있었다.
 (이) - 조사시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가?
 = 실제 고문은 없었고 팔로만 목을 걸겠다고 하고 침대봉으로 매도 맞았다(오른손을 보이며).
 (홍) - 그게 고문 아닌가?
 = 뺨을 얼마나 맞았는지 줄도 한 적도 있다.
 (이) - 잠은 잘 잤나?

은 누구인가와 평민연에 대해서 물었다.
 (이) - 서 의원 방북사실은 언제 알았는가?
 = 6월22일 아침이었던 것 같다.
 (이) - 서 의원이 5만달러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아는가?
 = 전혀 모른다.
 (이) - 그러면 환종이에 돈을 써가지고 총재한테 갖다 주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 - 검찰의 가혹행위는?
 = 잠을 못자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이) - 8월22일 재판부의 증거 보전신청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 했는가?
 = 검찰 조사대로 된 것 같다(판사에게 얘기를 못했다는 내용임).
 (이때 교도소 접견과장이 업무종료시간이 경과되었으니 끝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며 이 변호사 등을 퇴실시켰다.)

방북사건 연루 방양군씨

가혹행위 재정신청 기각

94.12.23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형을 선
고받고 수감중인 방양군(39·전 서
의원 비서관)씨가 수사검사와 안
전기획부 직원을 독직폭행·가혹행
위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재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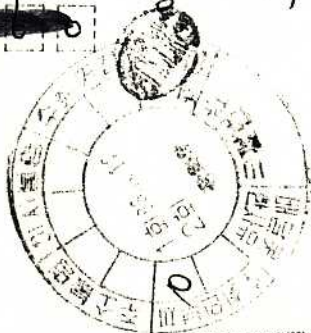
22일 가족들에 따르면 전주교도
소에 수감중인 방씨가 "지난 8월
서울교법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15
일 기각됐다는 사실을 접달받았다"
고 21일 이뤄진 면회에서 밝혔다
는 것이다. 권주/인민족 기자

사람 광주광역시 [redacted]

[redacted]

정려수임.

[redacted]



받는사람

인켄 위윈장님.

(인켄 위윈회)

서울특별시 광로구 연지동 136-16

기독교회관 108호

110-701

28



[Handwritten signature]

1993. 10. 13 /

* 고발장

No. _____

1

고 발 장

1993. 10. 8

고발인 : 정 려 순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광주직할시 [REDACTED]

[REDACTED]

[REDACTED]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16 기독교인회 위원장님

발 신 : 광주직할시 [REDACTED]

[REDACTED]

인권위원장을 맡아 주기가 많으십니까?

저는 방양건의 아내 정례숙입니다.

저의 남편을 안기부등 검찰청에서 가혹행위
위한 부원들을 고발한지 하중입니다.

1989. 6. 29일 연행

남편은 서경원 전 국회의원의 비서반으로
그 당시 제사장에게 전 서경원 의원님의
방북관련으로 인하여 구속수감중이 되며,
서의원님의 방북사건으로 강제연행되어
삼선 국가안전기획부 지하감방에 도착되어
전원 수시인 4명 김진성 수사반 외 3명등
혹독한 주리, 협박, 학유, 잠안제약기등
원장 지니등을 하게 하듯, 지음까지
주위등으로 인하여, 원장 지니 등 지지 않고
신원이나 책을 볼수 없게 함으로 우롱
노이로 제 증상으로 인하여 고통의 나날로
수형생활을 하리 게시합니다.

아내인 제가 도저히 참을하리 불행이 되게
고발한지 합니다.

안기부 수사반은 미리 허위 글작성 조사내용을
써가지고 와서 수사반 요구대로 대답을

안하니까 안기부 김진성 수사관이
"목을 밧줄로 걸어버려"

라는 형박의 무릎을 꿇히고 밧줄 수첩
차례 때려 이마 뒷쪽부분이 찢어지고
뒷쪽 귀머귀가 되지만, 야전 침대 각목으
로 무릎하 때려 솟등이 찢어지고,
신체 어느 곳이든, 구르하기 편리하기 위해
안경을 뺏으게 하신, 이렇 지만 부츠를
구르,

경상도 광시의 40대 안기부리장이
무릎을 꿇혀놓고 수첩차례 밧줄 때려
꼴도 시키고,

"여기가 어딘걸야, 이곳에서는 너같은놈
죽어 신문에 가담해 버리면 끝이네.
월북 할려나 아군에 피산됐네" 하면서
전황 참수를 입이 무개라니 밤아시를 쫓겨
죽어버린. 형박 구타하리

벼리 책상에 자해지 못하도록 고무로
씌우고, 목을 밧기로 건복으로 갈아입힌후
야전 침대 각목으로 어깨 따우쪽 신장부
부터 다리 대퇴부 솟등을 그인조로 근래

전원 주사만이 1시간정도 구리.

호전하자, 안이나보니 찬물을 끼얹고
 의자에 힘겨울등, 표백상태에 다시
 야전침대 각목으로 다시구리. 정신을
 들어나니, 온 전신이 피투성이였고
 의사가, 주사를 놓은 것은 상태에
 정신이 들기때 눈앞이 깜깜했고
 심한 어지러움에 있었으며, 공포와 불안
 속에서, 무참히 수습차례 흉측한 구리
 장안채우기 (13일), 찬야조사, 라짐실
 뭇가지, 심지어 물도 못마시게 하던 양치질은
 물론, 식사후 즉시 조사하기등
 원인모를 약물을 강제 복용시키며
 또, 조사당시 저는 임신 8개월된 처녀,
 저를 신란했으니, 연방에서 조사받으려
 비명소리를 들어나라던 수인간 형박해할때
 제일 고통스러웠다는 고편의 진술이었고.
 검사도 10여회 구두반으로 정강이를 찧고,
 원인모를 약을 먹게 하였는데 이는 만기부
 족의 가혹행위 위예 대하여 심히 분노한
 억울하여 저의 남편에 고문받았던

약분에 대하여 남편에게 능숙대로
사실을 진술 하였읍니다.

저의 남편 방양권께서 흉통한 구내
근육 후유증으로 인하여, 두통과
형심증, 압박감, 불안, 근전 등, 원장
저 반응이 전혀 들리지도 않으며, 심한
노이로제 증상으로 인하여 책이
신문을 억지로 보면, 머리가 아픈 어수
각물과 진후식 신문이, 책을 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저의 남편의
증상과 관련된 사실을 진후로 보
사실대로를 진술 하였읍니다.

저의 위서장은 진술을 분리 양해하시
고야 주시옵소서, 그럼 이만 단락을
놓읍니다.

강정하는 위장증의 선처를 바라오며
를 진정하시옵길 기원하읍니다.

진술인 (정려순)
남편 방양권
(전주교도소수감중)

방양군 사건기록

1. 인적사항

생년월일 : 1957. 9. 1일생

학력 : 서경원 전 국회의원

주소 : 광주직할시

현재: 2녀 (10, 6살)와 처

2. 사건개요

서경원 전국회의원의 방북사건으로 인하여 1989. 6. 29일 연행되어 현재까지 구속 수감중임. 서의 원 방북사건으로 강제연행되어 남산 안전기획부 지하밀실에 도착되어 전문 수사관 4명 김군성 수사관 외 3명 등 혹독한 구타로 외쪽 고막을 터지게 했으며 협박, 회유,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외쪽 귀는 들리지 않고 신문이나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두통과 노이로제 증상을 보임. 수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은 미리 허위 날조된 조사내용을 써가지고 와서 수사관 요구대로 대답을 안하니까 안기부 김군성 수사관이 "목을 밧줄로 걸어버려"라는 협박과 무릎을 꿇리고 뺨을 수십차례 때려 이마 외쪽 부분이 찢어짐. 신체 어느곳이든 구타하기 편리하기 위해 안경을 못쓰게 하고선 이곳 저곳을 무참히 구타.

경상도 말씨의 40대 안기부 과장이 무릎을 꿇려놓고 수십차례 뺨을 때려 졸도시킴. 또한 "여기가 어딘지 아나 이곳에서는 너 같은 놈 죽여 신문에 가장해버리면 끝이다. 월북하려다 아군에 피산 되었다고"라는 협박을 해대면서 권총 총구를 입에 물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며 "죽여버린다"며 위협함.

벽과 책상에는 자해하지 못하도록 고무줄 씌우고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힌 후 야전침대 각목으로 어깨 좌우측 신경부부터 다리 대퇴부 손 등을 2인조로 교대해가며 전문 수사관이 1시간 정도 구타로 혼절함. 찬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자 의자에 포박시켜놓고 다시 야전침대 각목으로 구타함. 다시 혼절 후 정신이 들어보니 온 전신이 피부성이었고 의사가 주사를 놓고 있었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심한 어지러움증이 있었음. 13일 동안 잠안재우기, 철야조사, 식사 후 즉시 조사하기, 양치질도 못하게 했으며,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심지어 물도 못 마시게 했음.

당시 검사들은 고문 안했다고 했으며 판사가 고문 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변호사가 신체감정을 요구함. 서울대 이정빈 교수는 신체감정 결과 노이로제 증상처럼 목을 짊누르고 숨을 못쉬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협심증과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등은 고문후유증이라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3. 현재상태

방양군씨는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1993. 11. 27일 구속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씨와 안종택 검사(현 인천지검 부장)를 독직폭행(고문)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으나 94년 1월초에 이 사건은 서울지검으로 이송된 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부인인 정순례씨가 한달에 두번 정도 면회를 가고 있으며 고문으로 인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책을 오래 못보고 노이로제 증상처럼 협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쪽 귀가 안 들린다.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씨와 안종택
검사(현 인천지검 부장)를 독직폭
행(고문) 등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방씨는 고소장에서 "안기부에서
수사받은 50여일 동안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심한 고문 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쇠기름' 공판 증거조사 진행

사람몸에 해로운지를 둘러싸고
4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쇠
기름라면' 사건 20차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
장 곽동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성고문' 문귀동씨 또 불법영업

○...부천시 성
고문사건으로 5
년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부천에서 단란주점을 개업했던 문
귀동씨가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해오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
됐다.

14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부천
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문씨는
올해 10월18일 경기도 부천시 심
곡2동 190-10에 '가빈'이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개업한 뒤 칸막이를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유혹주점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지난 11월19일부터 내년 1
월26일까지 68일간 영업정지처분
을 받았다. 부천/김영환 기자

'서경원의원사건' 방양군씨 안기부 수사관·검사 고소

【전주=임석규 기자】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전
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방양군(38·
당시 서 의원 비서관)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p3
12/15



分類番號

703

日字 : 1989. 8. 29

房羊均씨 「그리판」혼전적
 平民서 증거보전신청
 平民書은 28일 徐敏元의원
 사전과 판판과 구출된 안면
 羊均씨가 수사관 앞에서 안면
 부우 인접한 뒤 판판에 안면
 나리에게 정조전 장영환
 을 영이키고있다고 주장
 영의 판판 증거보전신청을
 다.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씨와 안종택
 검사(현 인천지검 부장)를 독직폭
 행(고문) 등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방씨는 고소장에서 "안기부에서
 수사받은 50여일 동안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심한 고문 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쇠기름'공판 증거조사 진행

사람몸에 해로운지를 둘러싸고
 4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쇠
 기름라면' 사건 20차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
 장 곡동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성고문' 문귀등씨 또 불법영업

부천시 상
 고문사건으로
 10년형을 부여하고
 만기출소한 뒤
 부천에서 단란주점을 개업했던 문
 귀등씨가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해오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
 됐다.

14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부천
 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문씨는
 올해 10월18일 경기도 부천시 심
 곡2동 190-10에 '가빈'이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개업한 뒤 칸막이를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지난 11월19일부터 내년 1
 월26일까지 68일간 영업정지처분
 을 받았다. 부천/김영환 기자

**'서경원의원사건' 방양균씨
 안기부 수사관·검사 고소**

【전주=임석규 기자】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전
 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방양균(38·
 당시 서 의원 비서관)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93
 12/15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서경원의원 공판 비서관 방양균씨 7년 선고 나머지 9명 집행·선고유예 석방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서경원 의원(52·전남 함평 영광)에게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추징금3천3백24만9천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3·9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20일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서 의원에게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지령수수·잠입탈출·금품수수·회합통신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이같이 선고하고 비서관 방양균(34)씨에게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침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보좌관 김용래(38)씨 등 6명에게는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

년에서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까지를 각각 선고하고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상덕(52)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북한 사람과 접촉해 왔고 의원 당선후에 밀입북, 김일성 등과 만나 국가기밀을 누설했으며 금품을 수령하는 등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직 통일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분 등을 감안할 때 종교인이나 학생과는 다르게 평가돼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방

복사건 이후 국제조류가 냉전에서 화해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도 북한에 대해 포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북한에 보고한 기밀이 국가의 안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법정형인 사형·무기에서 이를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방씨에 대해서는 "차일환의 중언과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검찰조서는 조사내용 및 검찰수사관 증언 등으로 미루어 입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변호인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서관 방씨의 축협 투자계획서 탐지부분과 가톨릭농민회 통일분과위원장 이진우씨의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성명을 통해 "6공화국을 맞이하여 거듭 태어나야 할 사법부가 아직도 5공시절의 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0여일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이 차단된 채 밀실에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날조된 허위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면서 "항소심에서 기밀코 진실을 밝힘으로써 아직도 인권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법부의 낡은 고정관념,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 직위해제 정치의 희생양 된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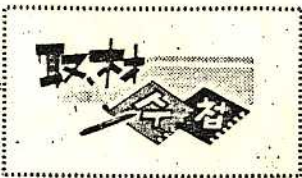
南大門시장 직위해제 "정치 희생양 된듯"

남대문시장 직위해제... 정치의 희생양 된듯

남대문시장 직위해제... 정치의 희생양 된듯

남대문시장 직위해제... 정치의 희생양 된듯

남대문시장 직위해제... 정치의 희생양 된듯



<그림 박기진>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검찰, 房羊均되고 "고문헌적"에 민감한 반응

Handwritten signature or note at the bottom of the page.